



신자수 향상을 위한 분만시 사고 자돈의 방지

정 창 용
(용인자연농원 사양1과)

3. 돼지 및 돼지고기의 유통「마진」

돼지의 판매과정을 축협을 통하는 경우와 수집상이나 반출상 등의 상인조직을 통하는 두가지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때 어느 경로를 통하는 경우에 보다 생산농민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에 한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자료는 물론 전체 양돈농가를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가 아니고 일부농가를 조사한 평균치임을 미리 말하여 둔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돼지나 돼지고기를 산지에서 가장 큰 소비지인 서울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인조직을 통한 지육반출의 경우와 축협의 계통출하경우로 두가지 경우를 각 유통단계별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돼지의 유통과정에서 상인반출의 경우와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 각각 농가의 수취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축협계통출하인 경우에

농가의 수취율이 85.3%인데 비하여 상인반출의 경우에는 농가수취율이 79.6%로 평균 5.7%포인트만큼 상인반출의 경우가 더 낮다.

이것은 농가에서 돼지를 판매할 경우 평균으로 말하자면 축협계통출하의 경우보다 상인반출의 경우에 농가에서 받는 수취율이 낮으므로

〔표 1〕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마진」율표³⁾

구분	출하처	상인반출 ¹⁾	축협계통출하
농 가 수 취 율 ²⁾		79.6	85.3
유통「마진」율	총 「마진」율	20.4	14.7
	비 용	8.6	10.8
	이윤(또는수익)	11.8	3.9
유통단계별「마진」율	농 가 비 용	-	4.4
	수 집 비 용	3.2	-
	반출상 이 윤	5.5	-
	소매상 비 용	5.3	6.4
	이 윤	6.3	3.9

1) 상인지육반출

2) 산지농가에서 서울로 출하의 경우

3) 1982년자료

(단위 : %)



그만큼 상인반출의 경우에 유통「마진」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마진」율을 보면 상인반출의 경우가 20.6%인데 비하여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는 14.7%로 낮다. 또한 상인출하의 경우 총유통「마진」율의 구성내 용을 보면 비용이 8.6%이고 이윤부분이 11.8%인데 비하여 축협계통출하인 경우에는 비용부분이 10.8%이고 수익부분은 3.9%이다. 즉 비용부분에서는 축협계통출하의 경우가 상인반출의 경우보다 비용율이 높는데 반하여 이윤율에서는 상인반출의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용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인반출의 경우에는 수집상이나 반출상들이 직접 농가의 문앞까지 가서 구입하게 됨으로 농가에서의 유통비용은 없고 수집반출상이나 소매상에서의 비용이 각각 3.2%와 5.3%가 드는 반면에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는 수집반출과정이 없으므로

로 비용은 농가단계에서 4.4%, 그리고 소매단계에서 6.4%로 총 10.8%로 나타나고 있다.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 농가의 비용율이 4.4%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이 아직 발달이 안되어 있고 그 발전초기인 관계로 돼지 생산조합원농가의 문전까지 축협이 일일이 가서 수집하는 체제가 아직 발달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조합원인 돼지생산농민이 축협까지 운반해와야 하는 불편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리고 총 「마진」율에서 상인반출의 경우에 축협계통출하의 경우보다 비용율이 평균 2.2%포인트만큼 낮은 이유는 그만큼 상인이 유통비용절감면에서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축협계통조직의 유통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표 (2)는 서울과 남원간의 돼지 유통마진을 각각 실제로 금년초의 평균가격인 성돈 한 마리당 161,000원으로 동일한 경우에 상인반출의 경우와 축협계통출하의 경우를 앞서 살펴 본 「마진」율에 의하여 실제로 가격을 계산하여 본 시산표이다.

만일 서울 소비지의 가격이 평균 한마리당 161,000원이라고 할때에 상인반출의 경우에는 총유통「마진」이 32,844원이 되고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는 23,667원이 되어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 한마리당 평균 9,177원의 유통마진이 절감되는것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농가수취가격도 그만큼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 더 높아서 상인반출의 경우인 128,156원보다 9,177원이 더 높은 137,333원이 된다.

이 두경우의 유통「마진」상의 차이를 보면 유통비용에서는 상인반출의 경우가 13,846원인데 비하여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는 17,388원으로 한마리당 평균 유통비용이 축협계통출하의 경우가 3542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이윤 또는 수익개념에서는 상인반출의 경우가 18,988원인데 비하여 축협계통출하의 경우에는 6,279원으로 축협계통출하의 경우가 12,719원이나 작다. 이것은 축협이 양축농가 조합원들의 자조단체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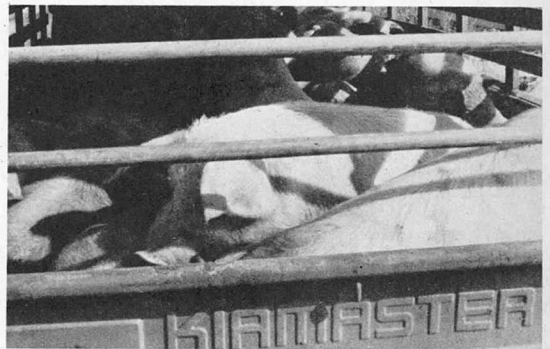
[표 2] 남원→서울간 돼지유통「마진」표

항 목		상인반출	축협계통출하
유통「마진」	농가수취가격	128,156원	137,333원
	총 「마진」	32,844	23,667
	비 용	13,846	17,388
	이윤(또는수익)	18,998	6,279
유통단계별「마진」	농 가 비 용	-	7,084
	수 집 비 용	5,152	-
	반출상 이 윤	8,855	-
	소매상 비 용	8,533	10,304
	이 윤	10,143	6,279

1983년 9월말 현재 사육두수인 3,720천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때에 기업양돈에서 생산하고 있는 446천두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3,274천두가 된다. 만일 이 330여만두가 모두 축협계통판매를 통하여 앞서 본 예와 같이 거래된다고 할때, 농가수취가격면에서 한마리당 9,177원의 이익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약 3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농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종사육두수의 반절정도가 축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된다고 하는 경우라도 총체적으로 150억원정도의 농가이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현재의 축협계통출하보다 상인반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농가 수취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상인의 경우에 축협과 시장에서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물량「마진」등의 불공정거래나 또는 정당



한 세금관계를 포탈하는 유사도매시장 거래관계에서의 초과이윤을 단골 거래 농가에 유리하도록 일시적으로 더 지불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 축협이 설립된지 겨우 2년여에 불과하여 그 조직면이나 또는 모든 사업운영면에서 여러가지로 비효율적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생산농가인 조합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거나 아직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부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산농민의 입장에서 조합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상인조직이 아니고 그래도 축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인이라 하면 상인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가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양축농가의 자조단체인 축협계통 출하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방향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양돈농가와 축산업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 등 이들 3자가 다같이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특히 우리나라의 돼지생산과 유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업 협동조합이 양축농가,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얼마나 빠른시일내에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느냐는 데에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있다. ◇